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2

깨달음은 먹고 자는데 있다

[원문] 鐘鳴鐘落又竹篋 (탁명종락우죽비) 鳳飛銀山鐵壁外 (봉비은산철벽외) 若人問我喜消息 (약인문아희소식) 會僧堂裏滿鉢供 (회승당리만발공) -능가산 내소사 대웅전

[번역] 목탁소리 나자 종 울리고 죽비소리에 봉황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다. 만약 나에게 기쁜 소식을 묻는다면 회승당 안에 만발공양이라 하리라.

[선해(禪解)]

한 여름 뜨거웠던 폭염이 사라지고 만추(晩秋)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무릇 이 때가 되면 신승의 마음도 절로 하염없이 풍만해진다. 과일들은 제법 곱어졌고, 벼는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서실(書室) 한쪽에 놓여난 난초(蘭菊)이 예 없이 파랗게 돌아 있다. 이런 때는 가만히 법당에 앉아 눈을 감고 좌선해 보면, 어디선가 고요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난을 치듯, 서(書)를 치듯 가만 가만 마음을 놓아보면, 선우(禪友)들이 시절 없이 그림고, 금오 스님의 사자후마저 한없이 그리워진다. 결코 짧지 않은 칠십 생이 마치 주마간산처럼 지나간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지어 놓은 천만가지의 일들이 모두 '꿈속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표표히 장삼자락을 떨치고 깊은 암자에 들어가 머물고 싶어진다. 귀에는 솔바람이 솔솔 불고 눈앞에는 천리강산이 아득하듯이 말이다.

"저러도록 쓸쓸한 가을바람 / 밤 깊어가도 잠은 안 와 / 저 별에는 어이 그리 슬피 울어 / 나의 베갯머리를 적시게 하나."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던 경허 스님은 가을을 두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 잠으로 그 어떤 당대의 시인보다도 더 마음을 울리는 절구이다. 그 절전의 가을이 우리 앞에 와서도 왜 우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은 하나의 회고(回顧)이다. 돌아 본 삶에는 언제나 몇 가지의 흔적들이 오롯이 남는다. 지난 여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던져 주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언급한 바 있듯이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리라.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우울하게 만든다. 민주적 열망을 위해 평생을 보내고,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김 대통령이 연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2002년 당시 북한과의 서해 해전이 발발한 직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을 느꼈다고 한다. 그 때 많은 꽃다운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김 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국이 안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북한과의 햇볕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후 평화공존 및 평화 교류의 실현, 화해 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남북 상호이익 도모,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남북 교류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은 한국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김 대통령께 몇 가지의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을 위해 몇 가지의 정책을 펴 달라고 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소외계층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하는 노숙자와 극빈자들을 위해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것으로, 한국 복지국가 건설 투쟁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제도이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자신의 지적을 거론할 때 빼먹지 않고 주로 거론했던 것이 '국

래루(來來樓)가 있다. 내소사의 유래에 관하여, 일설에는 중국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내소(來蘇)'라 하였다고도 하나 이는 와전된 것이며, 원래는 '소래사(蘇來寺)'였음이 <중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고,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도 고려 인종 때 정지상(鄭知常)이 지은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다. 또 이규보(李奎報)의 <남행일기(南行日記)>에도 '소래사'라 하였는데, 이것이 언제 '내소사'로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속암자로는 정련암(靑蓮庵)·지장암(地藏庵)이 있다. 1986년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전북기념물 78)으로 지정되었다. 일주문(一柱門)부터 천왕문(天王門)에 걸쳐 약 600m에 이르는 전나무숲길이 유명하다.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관음봉(觀音峰: 433m) 아래에 있는데, 관음봉을 일명 능가산이라고도 하는 까닭에 보통 '능가산 내소사'로 부르기도 한다. 내소사 주련의 글귀는 해안 선사의 오도송을 그대로 일출 김충현이 써서 옮긴 것이다. 해안 선사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이곳 내소사에서 출가해 평생 이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열반에 드셨다.

탁명종락우죽비 봉비 은산철벽외: 목탁소리

해안선사 오도송 김충현 글씨로 대웅전 장엄 은산철벽도 녹여 버리는 대자유의 경지 노래

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등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을 확정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기초연금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아마 오찬 이전에도 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날 불교계와의 만남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 같다. 이 같은 비화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능가산 내소사 대웅전이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禪雲寺)의 말씀이다. 633년(백제 무왕 34) 백제의 승려 해구두타(海丘頭陀)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소래사(蘇來寺)라고 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내소사는 소소래사이다.

1633년(조선 인조 11) 청민(淸旻)이 대웅전(大雄殿: 보물 291)을 지었는데, 그 건축양식이 매우 정교하고 환상적이어서 기하 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865년(고종 2) 관해(觀海)가 중수하고 만허(萬虛)가 보수한 뒤, 1983년 해산(海山)이 중창하여 현재의 가람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고려동종(高麗銅鐘: 보물 277),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보물 1268), 3층석탑(전북유형문화재 124), 설선당(說禪堂)과 요사전(전북유형문화재 125) 등 여러 문화재가 있으며, 정문에는 실상사지(實相寺址)에서 이전(移建)한 연

나자 종 울리고 또 죽비소리에 봉황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다.'

불문에 있어서 경(經)은 혈육(血肉)이 되고 선(禪)은 골수(骨髓)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선수행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해안 선사의 발자취와 깨달음의 소리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 깨달음은 기하 은산철벽을 타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듯하다. 해안 선사는 공부를 마치고 나는 이제 대 자유인이이던 천 길 낭떠러지도 영원할 것 같은 은산철벽도 모두 한 날 눈송이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외쳤다고 한다.

·약인문아희소식 회승당리만발공: 만약 나에게 기쁜 소식을 묻는다면 회승당 안에 만발공양이라 하리라.'

기쁜 소식은 바로 해안선사의 깨달음의 극치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본분이며 삶의 향방(方向)이지 않겠는가. 오도란 바로 삶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놓고 '심즉불(心卽佛) 즉 마음이 곧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는 일이며 기쁜 마음으로 공양간에 앉아 공양을 드는 일이다. 참으로 깨달음이란 밀고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잠자고 밥 먹는 일에 있음을 말해 주는 주련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2

빈궁·괴로움 모두 망상에서 생겨

[원문]

初發心人 神識總不定. 若夢中頻見異境 輒不用疑 皆是自心起故 不從外來. 夢若見光明出現過於日輪 卽餘習頓盡 法界性見.

"빈궁과 괴로움이 모두 망상에서 생겨나니, 이 마음을 깨달아 서로 서로 타일러서 힘쓰게 하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 그대로이다" 라는 생각만 내면 바로 여래의 지견(知見)에 들게 되리라. 처음 발심한 사람은 신식(神識)이 안정되지 못하니 꿈속에서 자주 이상한 경지를 보게 되더라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꿈에 광명이 햇빛보다 더 밝게 나타나 는 것을 보게 되면 남아있는 습(習)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해설]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일들은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끄달려서 분별·집착하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금강경>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더라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행하면, 그 행위는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지 않는 무무부(無無福)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바라밀행 가운데 첫 번째 수행 덕목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품을 통해서 바라밀을 이룬다는 말은 곧,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실상을 바로 알고 큰마음을 갖고 행하면 우주를 상대로 무한의 복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베풀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빈궁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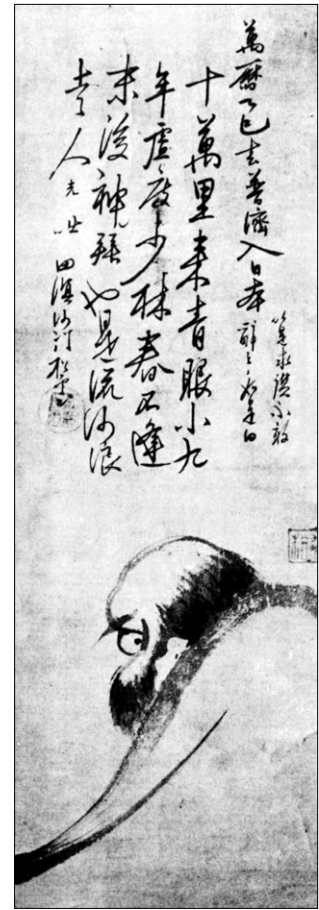
다. 인과의 원리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은 남이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본래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남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말은 우주 실상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나름대로 정진을 해봐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엔 잘 안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된다고 하면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진하는 도중에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꿈속에서도 이상한 경지가 나타나는데,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런 것에 끄달려 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속이 아니라라도 정진하는 중에 밝은 광명체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자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햇빛이 나기 때문에 밖을 환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름이 끼면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에 구름이 없으면 지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지만, 구름이 끼면 환하게 밝힐 수가 없듯이 우리 성품 자리도 태양과 같은 광명체입니다. 광명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성인이 되고, 광명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불성(佛性)은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으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잘못된 견해로 인해 만들어 놓은 업(業)이 광명으로 된 기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성을 싸고 있는 탁한 기운들을 정진을 통해서 녹이고 녹이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덮고 있는 것을 수행하면 맑은 기운이니까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서 본래 불성이 환하게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것이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탈 때 흠뻑물이라고 하면 '후~' 하고 불고 마시잖아요. 옛날 시골 개울물도 그렇게 마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탁한 기운들이 정진을 하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광명체 즉, 법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쉽게 체험이 되면 그 순간에 우주의

실상을 깨치는 겁니다. 이것을 초견성(初見性)이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이 바로 성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실상을 처음 체험했을 때를 얘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업이 다시 밀려오면 캄캄해 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롱한 구슬이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구슬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의 불성은 캄캄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정진을 열심히 하면 캄캄한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견성(見性)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대사 작 '달마도'(간송미술관 소장).

■ 정주 혜은사 주지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역)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하든? 맑은 습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영당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당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음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10% DC